

안방서 자존심 구긴 황선홍호, 내일 태국과 리턴매치 갖는다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 예정 지난 21일 홈경기 1-1 무승부...FIFA랭킹 101위 vs 22위

안방에서 자존심을 구긴 한국 축구가 태국과 리턴매치를 갖는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6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을 치른다.

2승1무(승점 7)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홈경기(3차전)에서 태국과 1-1로 비겨 자존심을 구겼다. 전반 42분 터진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

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1위로 한국(22위)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팀이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을 보유한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전력에서 한국이 우위지만 안방에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한 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달 아시안컵 4강 탈락과 여러 이슈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하나로 뭉쳐 호흡을 맞춘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손흥민은 A매치 통산 45번째 골로 주장의 존재감을 뽐냈고,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은 후반에 교체로 출전해 예리한 패스와 크로스로 변함없는 경기력을 과시했다.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공격수 주민규(울산)도 전방에서 태국 수비진을 상대로 적극적인 뽀빠움을 펼치고, 연계 플레이를 도우며 좋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답답한 운영과 저조한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고, 몇 차례 치명적인 실수로 실점 위기를 맞았다. 초반에는 오히려 태국의 적극적인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따르면, 한국은 점유율에서 78.5%-21.5%, 슈팅개수에서 25개(유효슈팅 8개)-6개(2개)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황 감독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졌고 심리적으로 급했다. 밸런스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이 있다.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을 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그걸 보완해서 원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각 조 2위까지 3차예선에 진출한다. 여전한 조 수위를 달리고 있어 유리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태국 원정이 중요한 이유다.

태국 축구계와 팬들은 서울 원정에서 값진 승점 1점을 획득한 것에 만족 고무했다.

태국 매체 '시암스포츠'에 따르면, 이미 매진됐던 한국-태국의 2차예선 4차전 티켓값이 비공식 채널에서 10배나 경중 뛰었다. 약 5만명이 입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암스포츠는 "티켓값이 10배나 올랐다"며 "경기 당일에도 경기장 주변에는 압포상들이 많이 보일 것 같다.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세타 타워산 태국 총리는 선수단을 격려하며 "26일 다시 멋진 승부를 펼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전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그는 "규정 안에서 정부가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태국축구협회와 별도로 선수단을 향한 포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태국전사들은 태국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과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한국 손흥민, 이강인 등 선수들이 1-1 무승부로 경기기 끝난 뒤 아쉬워하고 있다.

함께 현지 날씨도 극복해야 한다. 경기가 열리는 저녁 시간 온도는 섭씨 30도 초반, 습도는 70-80% 수준으로 덥고 습한 환경이다.

손흥민은 태국과 3차전이 끝나고 "정말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원정에서 홈팬들의 아우와 열정적인 응원을 대비해

야 한다. 분명히 어려운 경기일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해야 할 것들만 하면 분명히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태국과 통산 상대전에서 46전 30

승8무8패로 크게 앞서 있다.

가장 최근 패한 건 26년 전이다. 1998 방콕 아시안게임 8강전으로 연장전 끝에 1-2로 패했다. 공교롭게 당시 경기장이 이번에 대결을 펼치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이다.

뉴스스



차준환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벨 센터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연기하고 있다.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10위...2년 연속 입상 실패

미국 말리닌, 333.76점으로 우승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권 2장 확보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부상 투혼에도 아쉽게 세계선수권대회 2년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차준환은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0.49점, 예술점수(PCS) 81.95점, 감점 1점을 합쳐 161.44점을 받았다.

이로써 쇼트프로그램 점수 88.21점을 합한 최종 총점 249.65점으로 10위에 올랐다.

금메달은 총점 333.76점을 얻은 일리아 말리닌(미국)이 차지했고, 은메달은 309.65을 얻은 가기야마 유마(일본)에게 돌아갔다. 동메달은 284.39점을 얻은 아담 사오 힌프(프랑스)가 차지했다.

대회 3연패를 노렸던 우노 쇼야(일본)는 총점 280.85점으로 4위에 그쳤다.

24명 중 16번째로 은반 위에 선 차준환은 '더 배트맨' 주제가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4회전) 살코를 성공하며 수행점수(GOE) 2.49점을 챙겼지만 두

번째 점프 과제에서 쿼드러플 투트루프를 실금(1회전)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했다. GOE도 0.05점 깎였다.

세 번째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투트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도 언더로테이션(회전 수 부족)로 GOE 2.77점이 깎였다.

뒤이은 플라이잉 카멜 스피ンを 최고난도(레벨 4)로 처리한 차준환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스텝시퀀스(레벨4)를 처리하며 전반부를 마쳤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에도 결정적인 점프 실수가 나왔다. 후반부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더블 악셀-시퀀스 점프를 성공시킨 차준환은 다음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뛰다가 넘어졌다.

이 점프로 GOE가 4점이나 감점됐고 총점에서도 1점 손해봤다.

하지만 차준환은 포기하지 않고 트리플 플립과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ن(레벨4)-코레오 시퀀스-플라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ن(레벨3)을 차례로 성공시키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차준환은 대회를 마친 뒤 "너무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며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흥민, 희귀병 고백...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 많아"

컨디션 유지 위해 시설 잘 갖춰진 집으로 이사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축구 선수에게 치명적인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파이브는 23일(현지시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믿기 힘든 기록을 쓰고 있지만,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며 "톱 클래스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었던 병을 앓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최근 아마존 다큐멘터리를 통해 "경기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불면증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축구 선수에게 치명적이다.

손흥민은 불면증을 없애기 위해 시설이 잘 갖춰진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손흥민은 "새로운 집에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이사를 오게 됐다"며 "크

진 않지만 체육관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다. 좋은 시설 덕분에 경기,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구단 통산 398경기에서 출전해 159골 88도움을 기록 중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만 293경기 117골 66도움을 올리고 있다.

2021~2022시즌에는 EPL에서 23골을 터트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였던 해리 케인이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이적한 뒤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EPL에서 14골을 기록, 득점 랭킹 공동 5위에 올라와 있다.

A매치 기간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한 손



흥민은 지난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C조 3차전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전반 42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A매치 124번째 경기에서 터트린 45호골이다.

손흥민의 활약에도 한국은 태국과 1-1로 비겼다.

손흥민은 오는 26일 태국 원정 4차전에서 연속골 사냥에 나선다.

뉴스스

한화 에이스 류현진 "150km 던져도 제구 안되면 소용없다"

"다음 경기는 제구에 더 신경 쓸 것"

한화 이글스 에이스 류현진(37)이 제구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류현진은 지난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 3%이닝 6피안타 3볼넷 5실점(2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투구 수는 86개, 직구(45개), 커브(18개), 체인지업(14개), 커터(9개)를 섞어 던졌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까지 나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했던 류현진이 KBO리그 마운드에서 선 건 2012년 10월4일 대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전 이후 4188일 만이다.

하지만 류현진은 기대와 달리 제구가 흔들렸다. LG 타자들을 이를 놓치지 않고 공략해 류현진을 강판시켰다.

류현진은 24일 잠실구장에서 개막전 선발로 등판한 후 아쉬운 투구였다고 평가했다.

12년 만에 KBO리그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기본 좋게 마운드에 올라갔다. 가장 큰 구

장에서, 많은 팬들 앞에서 등판했고, 많은 한화 팬들 앞에서 던져서 짜릿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LG 선수들이 모자를 벗고 인사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게임 시작할 때 타자들이 인사를 했다. 또 LG 선수들이 더그아웃 앞에 나와 있길래 뭐 때문에 서 있는지 몰랐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장감도 있었지만 제구가 안 좋은 게 부진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류현진은 "직구는 초반에 괜찮았다. 마지막 이닝에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가운데로 몰렸다. 변화구 제구도 아쉬웠다. 예방주사를 한 번 맞은 느낌이라 생각하고 다음 경기는 준비를 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좋았다. 하지만 제구가 중요하다는 걸 또다시 느꼈다. 구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며 "LG 타자들이 달라붙었고, 배트에 맞히려려고 하는 걸 느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150km짜리 공을 던져도 제구가 안되면 소용없다. 140km 초반이 나와도 코너위크만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 대 한화이글스의 개막전 경기, 4회말 한화 선발 류현진이 LG 김현수에게 안타를 받고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경기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그는 "다음 경기는 제구에 신경써서 하겠다. 어제 같은 경우는 투구 수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선발투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